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방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자: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22호  
서기 2001년 6월 13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모두 둘로 보지 않으면 지혜 늘어

소릴 듣고 저 소릴 듣고, 이렇게 바뀌듯 전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탐을 조정하는데, 구정토의 탐을 짓는데, 색을 모두 갖추라니 색을 갖추 수가 없지. 그래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색을 갖추려고 해. 지금 흰색을 하나 못했어. 그러는데 이것을 볼 때에 보통 그냥 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애고를 어떻게 해야만 될 수 있나를... 우리가 어디다가 말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통하나. 또 어디다가 말하면 통신이 되나. 이런 것도 다, 미래에 말할 거, 현재의 말할 거, 과거에 말할 거는 잘못된 거는 치우고 잘 된 거는 앞으로 가자고 와서 다시금 잘 된 것까지 챙겨서 말을 하거나 연결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스님들은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즉 말하자면 살을 깎아서 올리고 또 피는 색을 칠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냥 탐만 세워 놓으면은 탐인 줄 알지 말고 탐을 세워 놓으면 스님들이 살을 깎아서 올리고 피를 내서 색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뀌 없는 마차를 타고 즉 말하자면 우주의 지금 돌아가듯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통신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질문자: 우리는 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우주 안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 어느 법우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잘 하게 하라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내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도중 무심코 한 생각에 그건 저기도 모르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지면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겠나며 상대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때문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넘치는 데는 좀 덜어 주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써 보기도 하라고, 그래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나고 말씀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해 놓고도 사실은 저도 평소 그 법우처럼 마음을 내는 게 사실인지라 좀 황당했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부딪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모두가 원만하고 이롭게 살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스님: 그렇게만 해나간다면, 그렇게 자주 해나간다면 지혜가 생기고 나쁜 거는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돌이 아닌 내가 되라고. 상대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가 부족한 부족하지 않은 돌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혜가 자주 늘어가고 이쪽도 저쪽도 다 언짢은 일이 없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혜도 늘어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만 산다면 참 걱정 없이 살겠는데 말입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20면으로 계속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답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질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질문자: 스님, 저희들에게 한시도 쉬지 않고 감로법을 설하여 주심을 모든 신도들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마음 법을, 생활을 통해서 찾고 깨달도록 설하여 주셨지만 미흡한 저희들은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생활 속에서 주인공을 찾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현재 IMF가 지났지만 국가나 사회, 가정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는 정법인 한마음 공부를 공부하기보다는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 또는 점술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보통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답을 얻도록 하는 것과 또 정법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마음을 공부하는 저희들도 잘 되는 쪽, 쉬운 쪽을 갈구하지 어렵고 힘든 쪽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을 때 한마음 법을 공부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 '관' 하면 해결되니 굴레없는 수레

포고를 해야되고 저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이여야 하는지 큰 법 청하옵니다.  
▲스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더더욱 가는 거고 그거는 빠르게 가는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을 내 보다가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래서 관하면은 참나에 의사로 바뀌어지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다면 관세음이 되고 좋은 대로 간다면은 지장이 돼주고 칠성부처가 돼주고 지신이 돼주고 용신이 돼주고 허공신이 돼주고 별의 별거를 다 돼 줍니다. 그렇게 참나참나 바뀌는데 바깥에 가서 물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요. 지금 바깥에, 일론 자기한테 하는 게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하면 그냥 곧바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 울바르 나가는 게 못되고 또 빠른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와 나가, 항상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나가 더 빠르지는 누가 더 빠릅니까? 그래 여부하면, 정히 답답하면은 아!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아귀를 지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도 하고 뭐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제각,

재빨리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빠른 거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에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제 3자가 자기를 대신 살아줄 리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 우리 선인들은 정말 자연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아끼고 지키며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기를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오염되는 결과는 더 엄청난 화가 되어서 성령들에게 직격탄으로 되돌아 올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갈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 안으로 통신해야 빨라

자의 대부분은 석유나 석탄입니다. 과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석유는 한 60년~70년, 그리고 석탄은 250년 정도면 거의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적에 에너지를 우리가 갈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을 대비해서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좋은지 청하옵니다.  
▲스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바깥으로 물어 보고 하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다니면서 잘못된 것은 거기다가 관 하시라는 얘깁니다. 거기다 관 하시면 슬금슬금 들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렇게 관하면...

그게 굴레 없는 수레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연기처럼 구름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서 통신이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국내에서 살기 너무 어렵고 그런데도 도리를 다 알았으면은 뭐 천지가 뒤집힌다고 그래도 걱정 없지만은 그렇질 않으니까는 간혹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남북통일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떡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해야 한 3년 지나면은 스스로 돌아서 되지 억지로 뛰어드는 인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돌아서 돼야 되겠죠. 뭐든지.  
▲질문자: 예, 다음은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잘 가르쳤는지 스님께 점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는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자들은 핵융합원에서 끊임 없이 물질이 바뀌어지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다. 그 중에서 그런 별성들이 상호 작용을 하고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에너지 대체 방안으로서의 우리 주변의 늘 무진장한 물 같은 것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양 같은 데서 높은 열과 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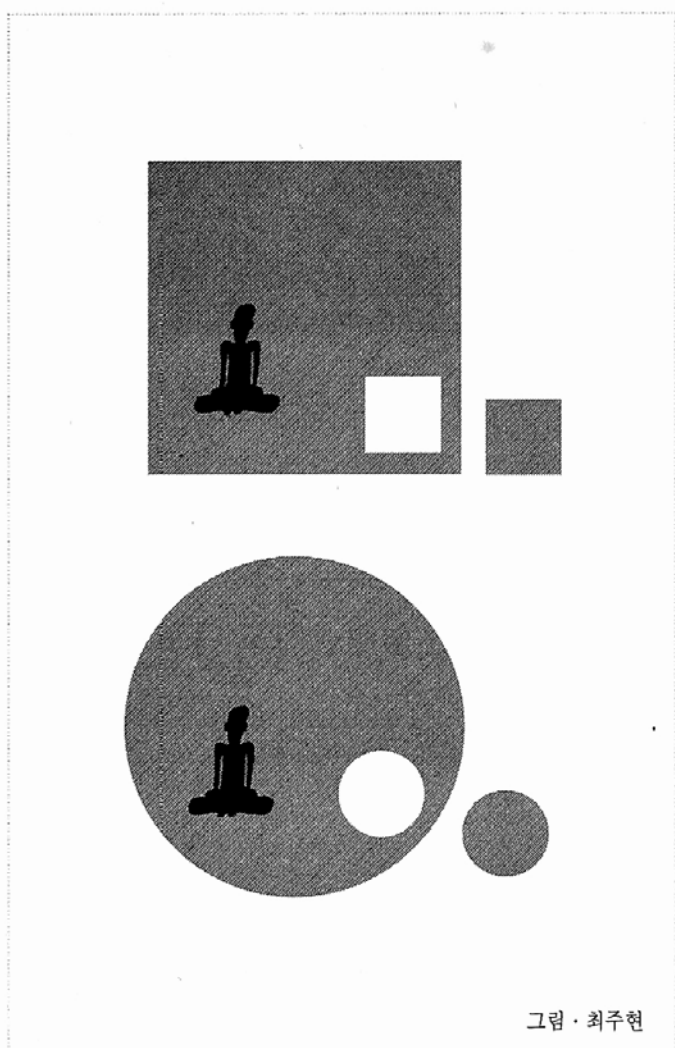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남이 아닌 자기에 관해야 즉시 통신 시시각각 바뀌지니 세상 살 수 있어

력이 있어서 핵융합반응을 일으키지만 지구에서는 현재 실험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께서도 전에 심성과학에서 말씀해주셨습니까? 옛날에 보면 만화에 꼬마 자동차 봉봉이 있는데 그 자동차는 물을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정말 그와 같은 낮은 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물을 1대만 가지면은 지구를 공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차도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가르침 청하옵니다.  
▲스님: 그것이 생각하면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지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한 생각을 돌리시면은 바로 잡았다 거꾸로 잡으면, 왜 불성하면은 성불이 되고 성불하면은 불성이 되듯이 그렇게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 하나 덩어리만 가지면 이

우주를 돌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방 에너지를 생산해 내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지원에서는 지금 대응전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마음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스님께서 더 큰마음을 내주셔서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모든 신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청하옵니다.  
▲스님: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더 연구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해서

### 참나참나 바뀌는 세상

모두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끔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를 한 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한다면 넉넉하지 않아도 옹종하게 못 짓거나 하는 이치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모두 하나에서 나고 드는 겁니다. 여기가 우주라고 봐도 됩니다. 우주의 근본처, 근본처란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처는 돌도 아니고 오로지 하

가빠른 언덕을 넘듯 고요한 현실에 함께 뛰어드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군